

중국의 중의문헌학 교육 현황

China's Current Philology of Chinese Medicine Education Status

韓美鏡 (Han, Mi-Kyung)*

◁ 목 차 ▷

1. 서론	3.4 산동중의약대학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중의문헌학 교육내용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4.1 서지학적 교육내용
2. 연구의 배경	4.2 의서류 문헌 교육내용
2.1 중의문헌학	5. 분석 및 시사점
2.2 중의고적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	5.1 분석
3. 중의문헌학 교육기관	5.2 시사점
3.1 북경중의대학	6. 결론
3.2 상해중의약대학	<참고문헌>
3.3 남경중의약대학	

< 초 록 >

이 논고는 중의학의 기초의학 영역에서 교육되는 중의문헌학의 교육 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의 중의문헌학 교육은 1950년대에 북경중의대학에서 처음으로 교과로 개설하고, 남경중의약대학에서 최초로 중의문헌연구팀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80년대에 ‘중의고적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이 법제화되면서 중의문헌학은 전문가 양성의 한 시책으로 본격적으로 교육되기 시작한 중국특유의 새로운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의문헌학 교육기관으로 북경중의대학, 상해중의약대학, 남경중의약대학 및 산동중의약대학을 조사하였다. 이들 대학의 중의문헌연구소와 중의문헌·문화연구원 등이 중의문헌학 또는 중의의사문헌학의 교육주체가 되어 학사와 석·박사학위과정 및 박사후 연수과정의 교과목 또는 전공으로 교육되고 학위가 수여되고 있다. 국가급계획교재인 『중의문헌학』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을 살펴본 결과 중의문헌에 대한 서지학적 교육과 16류(또는 20류)로 분류한 534종의 의서류 문헌을 교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지학분야 교육영역의 확장, 서지학분야의 융복합적 연구영역의 개발과 확장, 주제별 연구자를 위한 서지학적 연구 기반마련, 전국적 고문헌 연합목록과 전문분야별 서지구축을 제안하였다.

要語: 중국, 중의학, 중의문헌학, 문헌학 교육, 서지학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bib4u@kgu.ac.kr)

접수일: 2018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12월 7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8일
서지학연구, 제76집, 159-187,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159]

<ABSTRACT>

This paper was written with a view to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philology of Chinese medicine education, which is being educated in the area of basic medicine science of Chinese medicine.

China's philology of Chinese medicine education was launched in 1950s when college of Chinese medicine of Beijing opened the philology of Chinese medicine course for the first time and when college of Chinese medicine of Nanjing organized philology of Chinese medicine research team which did not exist before. Afterwards, as 'Regulation on Management of Research, Organization, and Publication of Old and Rare Books' got legislated in 1980s, philology of Chinese medicine earnestly became China's new and unique study area, which began to be educated as part of China's policy of training of Chinese medicine's philology experts.

This study investigated college of Chinese medicine of Beijing, college of Chinese medicine of Shanghai, college of Chinese medicine of Nanjing, and college of Chinese medicine of Shandong as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the philology of Chinese medicine. In the philology of Chinese medicine research center and philology of Chinese medicine books and culture Institute of these universities are playing leading roles in teaching philology of Chinese medicine to the undergraduate, graduate, PhD, and post doctorate students as part of the curriculum or major, while awarding degrees to them. As a result of review on the education contents of *philology of Chinese medicine*, which is a course book planned on national level, it was found out that they educate the main contents on 543 kinds of Chinese medicine books classified into 16 types (or 20 types) and bibliographical education of Chinese medicine records.

Through the above review, this study propose the expansion of bibliographical study area,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amalgative study area of bibliography field, setting of foundation for bibliographical studies for researches by subjects, building of the union catalogue of nation-wide old and rare books and bibliography by areas of expertise.

Key words: China, Chinese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hilology of Chinese medicine, education of philology, bibliograph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전적으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인 의학에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사회의학 따위가 있다. 의사나 의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교육은 나라마다 제도와 교육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한의학이나 중의학 등과 같이 나라마다 그 나라 기원의 전통적인 의학이 있다.

학문명백과에 의하면 기초한의학이란 한국에서 기원한 한의학 중에서 기초이론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연구영역은 원전학,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진단학이다.¹⁾ 중국의 중의학 기초이론 연구영역에는 이러한 한의학 연구영역 외에 중의문헌학 또는 중의의사문헌학이 있다. 이는 한국의 원전학과 의사학 등과는 달리 중의문헌에 대한 서지학적 내용과 중의문헌 중 대표적 醫書類와 주요판본을 교육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²⁾

중의문헌학은 1950년대에 북경중의대학에서 처음으로 교과로 개설되었고, 남경중의약대학에서 최초로 중의문헌연구팀이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전문분야 법제인 ‘중의고적 연구 정리출판 관리세칙’의 전문가 구비 규정에 의거하여 중의문헌학은 전문가 양성의 한 시책으로 본격적으로 교육되기 시작한 중국특유의 새로운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중의문헌학은 1980년대 이래로 중의약대학에서 학부의 필수 또는 선수과목 개설되거나 학사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및 박사후 연수과정의 교과와 전공으로 교육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역사와 서지학 및 문헌학과 정보원이라는 융복합적 성격의 국가급계획교재를 편찬하여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 들어 국가의 비준을 통한 새로운 학문으로 본격적으로 교육되면서 학문분야의 범위, 성격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관련 학술지 『中醫文獻雜誌』가 1994년에 창간되면서 중의문헌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중의문헌학의 교육과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 등이 연구되었으며, 최근 들어 교과과정과 교육법에 대한 보다 새로운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³⁾ 한편, 한국 의사학회는 2018년 6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사학 연구’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1) 『학문명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7561&cid=44416&categoryId=44416>>.
 2) 이 논고의 인명, 서명 등은 한문으로 표기하되 중국어와 한문이 같은 경우 한문으로 표기하고 다른 경우는 한글(중국어)로 표기하였다. 한편,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중국의 간체자는 정자로 표기하였다.
 3)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로는 李戎, “中醫古典(籍)文獻學的學科範疇和相關問題,” 『中醫文獻雜誌』 1(1994), 24-25. “淺論中醫醫史文獻學的性質, 任務以及研究重點,” [cited 2018.10.10.] <<http://www.shutcm.com/shutcm/jwc/jxggyyj/jxcg/27777.shtml>> 등이 있으며,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顧植山, “試論中醫教育中開設中醫文獻學課程的目的和意義,” 『天津中醫學院學報』 14:2(1995), 30-31. 鄒巒, 陸翔, “『中醫文獻學』教學改革實踐與思考,” 『中醫藥臨床雜誌』 1(2011), 71-72. 鄒巒, 陸翔, 王鵬 等, “本科中醫文獻學競賽教學法的實踐研究,”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3(2015), 88-89. 鄒巒, 陸翔, 王鵬 等, “以學生爲中心優化課堂設計: 談中醫文獻學課程教學體會,”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15(2017), 44-46 등이 있다.

국내의 의과학적 방법론인 문헌연구가 적용되는 교과목으로 각가학설, 한방생리학 및 병리학, 원전학, 본초 및 방제학, 상한론 등의 기초과목의 재구조화와 교육의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⁴⁾

이에 이 연구는 한의학 분야의 문헌연구가 적용되는 교과목의 재구조와 표준화 그리고 서지학 분야의 연구영역 확장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중국의 중의문헌학 교육 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논고는 중국의 중의문헌학 교육에 대한 현황 조사를 위하여 문헌연구법과 인터넷조사법 및 사례조사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에 발표된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의약 중점학문분야 구축전문가위원회의 ‘중의약 학문분야 구축계획지도목록’에 의하면 중의문헌학은 1급 학문인 중의기초의학에 해당하는 11개의 2급 학문 중 하나이다. 이 논고는 중국의 기초의학 학문의 하나인 중의문헌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연구의 배경으로 중의문헌학의 의의와 학문수준, 학습목표 등을 살피고, 중의문헌학 교육의 배경이 되는 전문분야 법제인 ‘중의고적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을 살폈다.

셋째, 중의문헌학 교육기관은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한 북경중의대학의 중의문헌연구소, 상해중의약대학의 중의문헌연구소, 남경중의약대학의 중의문헌연구소와 중의약문헌및문화연구센터 및 산둥중의약대학의 중의문헌연구소 4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각 교육기관의 중의문헌학 교육 연혁과 교육주체 및 연구목표 등을 살폈다.

넷째, 중의문헌학 교육내용은 ‘보통고등교육“십오”국가급계획교재’⁵⁾이자 ‘신세기전국고등중의약 교육기관계획교재’로 중의약류전공용으로 제공되는 2002년의 『中醫文獻學』을 대상으로 살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서지학적 교육내용과 의서류 문헌에 대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중 문헌에 대한 교육내용의 경우 일부 관련 내용 수록 문헌류와 1911년 이후의 근현대문헌 및 추천판본은 조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2. 연구의 배경

이장에서는 중국의 중의문헌학 교육 현황 조사의 배경이 되는 중의문헌학과 전문분야 법제인 ‘중의고적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을 살피고자 한다.

4) “의과학 교육, 기존 지식 토대로 직업 전문성 토론 및 문제의식 함양해야”, 『민족의학신문』, 2018년 6월 7일.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23>>.

5) ‘일오’ 계획은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계획으로 1953년부터 1957년까지의 첫 번째 5개년 계획을 의미하며, ‘십오’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열 번째 5개년 계획의 줄임말이다.

2.1 중의문헌학

‘中醫文獻學’은 ‘中醫古典文獻學’, ‘中醫醫史文獻學’ 등으로 불리 운다. 이는 중의문헌의 학술원 류를 연구하고, 중의문헌의 학습방법과 이론 및 중의문헌 정리와 이용 방법과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1980년대에 공식적으로 비준되어 개설 및 교육되기 시작한 학문으로 중의약문헌학, 중의 학사, 중의역대명가학설, 醫古文 등을 종합한 융합적이며 교차형 성격의 새로운 분야이다.⁶⁾ 이는 국내 한의학분야의 원전학과 의사학 등과는 다소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로서 중의문헌의 서지학 적 이해와 의서류의 주요 문헌과 그 판본의 이해를 교육하고 있다.

중국은 유관부문의 협조 하에 교육부학위및대학원생교육발전센터에서 학문수준을 평가 공포하고 있다.⁷⁾ 그중 교육기관에서 교육되는 중의문헌학의 학문수준은 2017년 발표된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의약 중점학문분야 구축전문가위원회의 ‘중의약 학문분야 구축계획지도목록’에 의하면 1급 학문 인 중의기초의학에 해당하는 11개의 2급 학문 중 하나이다.⁸⁾ 2018년의 ‘국가중의약관리국 “이십오” 중의약 중점학문분야구축’에 의하면 중의기초이론, 내경학, 상한학, 금궤요략, 온병학, 중의각가학설, 중의사학, 중의문헌학, 고한어 및 의고문, 중의진단학, 중의심병학, 중의간담병학, 중의흉병학, 중의 건병학, 중의비병학, 중의폐병학, 중의혈액병학, 중의피부병학, 중의공장병학 등의 총 19개의 학문분 야 중 중의문헌학도 선정되어 있다.⁹⁾ 또한 ‘중국 우수석사학위논문 원문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석사학위과정 중의학의 세부 전공영역에 중의의사문헌학이 분류되어 있다.¹⁰⁾

즉, 2017년 1급 학문 중의기초의학의 하나이며, 2018년 현재 19개 중의약분야 중점 학문분야로서 중의문헌학은 중의문헌의 이용, 정리 및 연구의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문분야이다. 2002년의 국가 급계획교재 편찬 당시 10여 곳의 중의약대학에서 필수과목 또는 선수과목으로 중의전공 본과생의

-
- 6) 淺論中醫醫史文獻學的性質, 任務以及研究重點, <<http://www.shutcm.com/shutcm/jwc/jxggyj/jxcg/27777.shtml>>.
- 7) 中國學位與研究生教育信息網, <<http://www.chinadegrees.cn>>.
- 8) 國家中醫藥管理局 中醫藥重點學科建設專家委員會 中醫藥學科建設規劃指導目錄(暫行), <<http://wjw.jiangsu.gov.cn/upfile/File/201710/17/1001494.doc>>. 구체적인 학문분야 수준은 1급에서부터 3급 까지로 계층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1급 학문은 중의기초의학, 중의임상의학, 침구추나학, 중약학, 중서의결합의 5개 분야이다. 각 1급 학문 이하에 각 2급 학문이 분류되어 있다. 즉, 1) 중의기초의학에는 중의기초이론, 內經學, 傷寒學學, 金匱要略, 溫病學, 中醫各家學說, 中醫史學, 中醫文獻學, 고한어와 의고문, 방제학, 중의진단학의 11개의 2급 학문, 2) 중의임상의학에는 중의내과학, 중의외과학, 중의골상과학, 중의부인과학, 중의남과학, 중의아 동과학, 중의안과학, 중의이비인후과학, 중의응급진단학, 중의양생학, 중의강복학, 중의노년의학, 중의간호학, 중 의전과의학의 14개의 2급 학문, 3) 침구추나학에는 침구학과 추나학의 2개의 2급 학문, 4) 중약학에는 중약자원학, 중약감정학, 중약제조학, 중약약제학, 중약화학, 중약분석학, 중약약리학, 임상중약학의 8개의 2급 학문, 5) 중서의 결합에는 중서의결합기초와 중서의결합임상의 2개 학문으로 총 39개의 2급 학문이 분류되어 있다. 이하 중의내과 학에 10개, 중의외과학에 3개, 중약자원학에 3개의 총 16개의 3급 학문분야가 분류 구축되어 있다.
- 9) “國家中醫藥管理局“十二五”中醫藥重點學科建設”, 『百度文庫』, 2018. <<https://wenku.baidu.com/view/17f67b2ebd64783e09122b5e.html>>.
- 10) 中國優秀碩士學位論文全文數據庫, <<http://202.106.125.35/kns55/brief/result.aspx?dbPrefix=CMFD>>. 중의학 이하에 중의기초이론, 중국임상기초, 중의의사문헌학, 방제학, 중의진단학, 중의내과학, 중의외과학, 중국골상과학, 중의부녀과학, 중의아동과학, 중의외관과학, 침구추나학, 민족의학, 장의학, 몽의학 등이 분류되어 있다.

교과과정에 편입되어 있고, 대학원 및 박사후 연수과정의 교과과정에도 개설되어 있다.

중의문헌학의 학습 목표는 1) 역대 중의문헌 중 반드시 읽어야 할 책과 각 문헌의 특징과 가치의 이해, 2) 중의학 문헌의 전체적인 개관, 3) 역대 선조의 질병 기록, 지식 및 경험이 녹아 있는 중의문헌 내용의 이해, 4) 각류 중의문헌의 저작체계와 학술원류의 이해, 5) 전통적 중의약문헌의 정리·연구 기초 위에 구축된 중의약 학술체계의 이해이다.

종합적으로 중의문헌학은 중의문헌 이용 능력의 양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중의약문헌의 감별과 선택 및 독서의 지도 및 고급 중의약문헌의 이해와 개발의 지도를 통한 학문 수준의 제고를 목표로 하는 중의학 전공 학생의 필수교과이다. 참고로 성도중의대학의 경우 모든 중의학 전공자들에게 중의문헌학을 필수적으로 학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¹¹⁾

2.2 중의고적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

중국은 중의문헌의 관리와 이용 및 교육 그리고 전문가 구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0년대에 관련 법제화의 일환으로 部門奎章인 ‘중의고적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을 규정하였다.¹²⁾ 이는 중의학 고문헌 관련 전문분야 법제로서 전국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업무의 과학적 관리 강화와 중국 위생부의 행정정책인 ‘중의고적 정리출판계획’의 실현 촉구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과 각 성시의 지도자 조직, 전문기구, 전문단체, 임무의 안배, 성과평가, 예산의 출처, 예산 용도와 경비사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총괄 기구는 국가중의관리국 중의고문헌정리출판실이며, 특히 각급의 중의고문헌연구소(실)와 중의고문헌연구정리 전문기구 연구소(실)를 설치하고 반드시 중의고문헌연구 정리에 종사하는 전문 인적자원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986년에 전국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업무를 위하여 제정된 ‘중의고적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에 의거하여 현재 중의문헌학은 주요 중의약대학에 새로운 학문분야로 개설 및 교육되고 있다. 실제 교육의 주체는 각 중의약대학의 중의문헌연구소, 중의문헌·문화연구원 등이며, 이들 기관은 학사 외에 석사와 박사 학위과정에서의 중의문헌학 교육과 연구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중의문헌학 교육기관

중국의 중의약대학은 중의약 인재 양성을 위한 의과 고등교육기관으로 1 省 1 대학이 일반적이다. 각 중의약대학은 의과대학과는 구별되며 시스템 또한 다르며, 각 대학마다 개별화된 특색을 갖추고 있다. 2018년 현재 24개 대학에 중의약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며,¹³⁾ 중의문헌학, 중의의사문헌학 등은

11) 李戎, “中醫院校學生都應學習一點中醫文獻學,” 『天津中醫學院學報』 1(1995), 25-6.

12) 『中醫古籍文獻研究整理出版的管理辦法(試行)』, 1986. ; 한미경,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의 조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권 3호(2018. 8), 205-206.

필수과목 또는 선수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 그중 학사부터 박사후 연수과정에 이르기까지 전공으로 중의문헌학을 개설하고 있는 곳으로 구체적으로 조사 가능한 대학은 북경중의대학, 상해중의약대학, 남경중의약대학, 산둥중의약대학이다. 이들 각 교육기관의 연혁과 특징 중심으로 조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중의문헌학 개설 대학 현황

구분		연혁	특징
북경중의 대학	중의의사문헌 교연실	- 1956년 北京中醫學院 설립 - 1950년대 중의의사문헌학 개설 - 석사·박사학위과정 및 박사후 연수과정	- 1981년 박사학위 수여권 비준 - 1996년 중의학박사후 연수과정 비준 - 2002년 북경시중점학문 비준 - 2007년 중의학 1급, 국가중점학문 비준
상해중의약 대학	상해중의문헌 연구소	- 1956년 상해중의약대학 설립 - 1982년 상해중의문헌연구소 설립 - 1999년 최초의 중국중의약문헌검색센터, 상해중의약대학서브센터 - 고대중의약문헌연구소 - 중의문헌학, 중의의사문헌학 개설 - 석사·박사 학위과정 및 박사후 연수과정	- 2007년 중의의사문헌학을 상해시중점학문 분야, 국가중점양성학문분야로 재정립 - 현대중의약문헌연구소, 고대중의약문헌연구소, 중의약문헌정보연구소, 중의의사학술류파연구소, 중의약문화연구소로 구성 - 중의의사문헌학: 국가급중점교육학문 - 중의문헌학, 중의사학, 중의문화학, 의고문, 각가학설: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점학문
남경중의약 대학	중의약문헌 연구소	- 1950년대 중의약대학 설립 - 중의의사문헌학 개설 - 석사·박사 학위과정 및 박사후 연수과정	- 2002년 이래 국가중점학문분야,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점학문으로 지정
산둥중의약 대학	중의 문헌·문화 연구원	- 1958년 중의약대학 설립 - 1976년 의사문헌학 개설 - 1976년 중의문헌연구소 설립, 현 중의문헌·문화연구원 - 1985년 중의의사문헌연구소 설립 - 1986년 중국최초의 박사학위수여권 비준 - 1990년 중의문헌학 본과 전공 개설 - 1999년 중의학 박사후 연수과정 개설 - 중의의사문헌학과 운영 -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및 박사후 연수과정	- 중의기초이론, 중의의사문헌: 국가급중점학문,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점학문, 성급중점강화건설A급학문 - 전국고등교육기관에 구축된 최초의 중의문헌연구소 - 중의문헌교연실, 의학정보관리교연실, 의학정보엔지니어링교연실로 구성 - '중의의사문헌박사'와 '중의의사문헌석사' 학위 수여권 대학

13) 北京中醫藥大學(1993, 전신 北京中醫學院(1956)), 上海中醫藥大學(1993), 廣州中醫藥大學(1995), 南京中醫藥大學(1995, 전국최초의 中醫藥院校(1954)), 成都中醫藥大學(1995, 전신 成都中醫學院(1956)), 山東中醫藥大學(1996, 전신 1958), 黑龍江中醫藥大學(1996, 전신 1954), 天津中醫藥大學(2006), 遼寧中醫藥大學(2006, 遼寧中醫學院(1958)), 長春中醫藥大學(2006, 전신 長春中醫學院(1958)), 浙江中醫藥大學(2006, 전신 浙江省中醫進修學校(1953)), 湖南中醫藥大學(2006, 전신 1934), 湖北中醫藥大學(2010), 福建中醫藥大學(2010), 廣西中醫藥大學(2012, 전신 廣西中醫學院(1956)), 安徽中醫藥大學(2013, 전신 安徽省中醫進修班(1952)), 江西中醫藥大學(2013), 河南中醫藥大學(2015, 전신 河南省中醫進修學校(1955)), 陝西中醫藥大學(2015, 전신 西北中醫進修學校(1952)), 甘肅中醫藥大學(2015, 전신 甘肅中醫學院(1978)), 山西中醫藥大學(2017, 전신 山西醫學院中醫大學班(1978)), 貴州中醫藥大學(2018, 전신 1965), 雲南中醫藥大學(2018, 전신 1960), 西藏藏醫藥大學(2018, 西藏大學藏醫學院(1989)).

3.1 북경중의대학

북경중의대학교 중의대학은 1956년에 北京中醫學院으로 창건하여 기초의대학, 인문대학, 침구대학, 관리대학(경영학), 간호대학, 국제대학(외국어학), 임상의대학, 중의약대학의 8개 단과대학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중 중의약대학은 쌍일류건설학문 3개, 국가중점학문 1급 2개과 2급 15개,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점학문 48개, 북경시중점학문 1급 2개와 2급 8개로 총 78개 학문을 개설하고 있다. 그중 중의의사문헌학은 국가중점학문 2급 학문이며, 북경시중점학문 2급 학문이다.

북경중의대학에서의 중의문헌학 교육은 런잉치우(任應秋) 교수가 1950년대에 개설하였으며, 1981년과 1996년에 처음으로 박사학위 수여권과 중의학 박사후 연수기관으로 비준을 받았다. 중의문헌학은 2002년에 북경시중점학문으로 비준을 받았으며, 2007년에는 본교 중의학 1급 학문이자 국가중점학문으로 비준을 받았다.

북경중의대학의 교육주체는 25개 교연실과 교학센터, 연구센터 등이며, 그중 중의의사문헌학은 중의의사문헌교연실이 교육의 주체이다. 중의의사문헌교연실은 원래 기초의대학 중의문헌교연실과 중국의학사교연실을 합병한 것으로 중의의사문헌학은 사학과 문헌학의 각도에서 중의약학의 이론과 경험 등을 교육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연구방향은 1) 중의 학술발전과 분파의 연구, 2) 중의임상 문헌의 연구, 3) 중의문화의 연구, 4) 중의전통의학의 비교와 교류사 연구이다.

3.2 상해중의약대학

상해중의약대학은 1956년에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기초의대학, 중약대학, 침구추나대학, 간호대학, 공공건강대학, 재활의대학, 국제교육대학, 계속교육대학, 마르크스주의대학, 체육부, 외국어교학센터, 교학실험센터로 조직되어 있다. 1급 학문 3개 분야의 1개 박사학위 수여권과 5개의 1급 학문분야의 5개 전공 석사학위 수여권을 비준받았으며, 3개의 박사후 연수과정 및 15개의 본과 및 전공과 8개의 계속교육 본과 및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중의의사문헌학은 국가급중점(양성)학문이며, 중의문헌학, 중의사학, 중의문화학, 의고문, 각가학설의 5개 학문은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점학문이다. 기초의대학에 중의의사문헌학과, 중의기초이론학과, 중의진단학과, 중의임상기초학과, 중서의결합기초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중 중의의사문헌학은 학과로서 기초의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의사문헌학 박사 및 석사 학위수여 대학으로 2005년에 상해시 제2기 중점학문으로 3년간의 구축과정을 걸쳐 2007년에 교육부 국가중점(양성)학과가 되었고, 2009년에는 상해시 제3기 중점학과 및 2010년에는 상해시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기지로 지정되었다. 중의의사문헌학과는 중의학과 文史學의 양대 영역 교차학문이다. 이는 의학사교연실, 각가학설교연실, 의고문교연

실이 교육 주체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의기초이론, 내경, 상한론, 금궤요략 등의 기구와 문헌연구소의 교수진이 참가하여 교육하고 있다. 주로 기초의대학, 문헌연구소, 중의약문화연구·유통센터, 의사박물관과 도서관이 중심이 되고 있다. 국가중점학문 4개, 국가중점학문 양성부분 2개,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점학문 38개 및 상해시 최고학문 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의의사문헌학은 국가중점학문 양성부분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의의사문헌의 교육 주체인 상해 중의문헌연구소는 1999년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심의로 최초의 ‘중국중의약문헌검색센터 상해중의약대학서브센터’로 비준되었다. 2007년말 중의문헌연구소는 상해시 중의의사문헌중점학을 국가중점양성학으로 재정립하고 현대중의약문헌연구실, 고대중의약문헌연구실, 중의약문헌검색연구실, 중의의사학술유과연구실, 중의약문화연구실로 구축하여 세분화된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중의문헌연구소의 주요 연구방향은 1) 중의출토문헌과 抄本의 연구, 2) 현대중의약문헌과 정보의 연구, 3) 儒釋道 문헌 중 중의약문헌의 연구, 4) 민족의약문헌의 연구이다.

3.3 남경중의약대학

남경중의약대학은 1954년 개교한 공립대학으로 기초의대학, 제일임상의대학, 제이임상의대학, 약대학, 경영무역관리대학, 간호대학, 외국어대학, 정보기술대학, 심리대학, 의학 및 생명과학대학의 8개 단과대학으로 조직되어 있다. 현재 남경중의약대학은 33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의의사문헌학, 중의약정보학, 본초학을 개설하고 있다. 중의학, 중약학 등 학과 외에 중의의사문헌과 중의아동과학과 전통중의학은 국가급 중점학문분야이다.

중의의사문헌학은 1950년대에 개설되었으며, 교육 주체로 중국 최초의 중의문헌연구팀이 구성되었다. 2002년 이래로 국가중점학 및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점학문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남경중의약대학은 국무원 등이 지정한 ‘전국고문헌중점보호단위’로서 중국 중의약 문헌정보검색센터 남경서브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으로 중의약문헌연구소, 본초문헌연구실, 방제문헌연구실, 임상문헌연구실, 현대문헌연구실, 민간약연구실, 중의유과연구센터, 중의국학연구소가 있다. 특히 전문적인 중의문헌관련 연구를 위하여 중의약문헌연구소, 본초문헌연구실, 방제문헌연구실, 임상문헌연구실, 현대문헌연구실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중의문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학술방향은 1) 현대 중대 질병과 중의이론의 상관성 연구, 2) 중의처방약문헌자원의 개발연구, 3) 중의문헌의 정리와 정보화, 지능화 연구, 4) 중의고문헌해제와 언어문자의 연구, 5) 중의 발전규율연구이다.

3.4 산동중의약대학

산동중의약대학은 1958년에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산동성 중점고등교육기관이며, 산동성 유일의 독립 의약대학이다. 중의대학, 약대학(천연약물연구소), 침구추나대학(침구연구소), 간호대학, 관리대학, 마르크스주의대학, 외국어대학, 이공대학, 재활대학, 체육교학부, 계속교육대학, 제일임상의대학, 제이임상의대학(의대학), 안과의대학(안과연구소), 중의문헌·문화연구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현재 중의학과 중약학의 2개 박사후 연수과정, 중의학과 중서의결합 및 중약학의 3개 1급 학문 박사학위수여권과 15개의 2급 학과 박사학위 수여권 및 26개 석사학위 수여권 대학이다. 중의기초이론과 중의의사문헌 2개 학문은 국가급중점학문이며,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점학문 및 성급중점강화건설A급학문이다.

중의의사문헌학은 1982년에 석사학위수여권을, 1986년에 박사학위수여권을 비준받았다. 또한 1990년에 국가교위의 비준으로 전국 유일의 중의문헌학 본과 전공을 수탁 개설하였으며, 1992년에 산동성 고등교육기관 중점학과로 지정되었다. 즉, ‘중의의사문헌박사’와 ‘중의의사문헌석사’ 및 ‘중의의사문헌학사’ 학위 수여권 대학이다.

중의의사문헌학은 1976년에 개설된 학문으로 교육주체는 개설당시 중의문헌연구실이었으며, 현재는 중의문헌·문화연구원이다. 중의문헌·문화연구원은 중의약대학 소속의 전문과기연구기구로서 전국고등교육기관에 구축된 최초의 중의문헌연구소의 하나이다. 중의문헌교연실, 의학정보관리교연실, 의학정보엔지니어링교연실로 조직되어 있으며, 중의약문화연구센터와 해외중의약정보연구·교류 센터를 두고 있다. 연구방향은 1) 중의약경전의 정리, 詮釋과 응용연구를 위한 중의경전문헌과 학문분야이론의 연구, 2) 중의약임상문헌의 정리, 발굴, 계승 및 선양을 위한 중의임상문헌정리와 응용연구, 3) 중의약 문헌 디지털 구축과 고대 문헌 디지털화의 시스템화 진행을 위한 중의약문헌 디지털화 연구이다.

4. 중의문헌학 교육내용

이장에서는 상술의 중의문헌학 교육기관 등의 교수진에 의하여 공동 편찬되어 국가급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中醫文獻學』을 대상으로 중의문헌학의 서지학적 교육과 의서류 문헌 교육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⁴⁾

14) 중의문헌학 교재는 동일 서명으로 薛鳳奎 主編(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 馬繼興 著(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嚴季瀾, 顧植山 主編(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嚴季瀾, 張如青 主編(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1) 등 다양하다. 여기서는 주로 ‘십일오’ 국가급계획교재를 참고하였으며, 일부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錄』(薛清錄 主編, 中醫古籍出版社, 1991)과 『中國醫籍通考』(嚴世芸主編,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1994) 부분도 참고하였다. 그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였다.

4.1 서지학적 교육내용

중의문헌학의 서지학적 교육 내용은 중의문헌의 목록, 판본, 訓釋, 교감 외에 辨僞와 輯佚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중의문헌학의 서지학적 교육 내용

구분	대구분	중구분	세구분
목록	개론	목록	
		목록학의 의의	
	목록의 기본구조와 유형	목록의 기본구조	
		목록의 유형	• 고대목록의 유형 • 현대목록의 유형
	중의 전문목록	중의 전문목록의 원류	
상용 중의 전문목록	『醫學讀書志』, 『中國醫籍考』, 『宋以前醫籍考』, 『四部總錄·醫藥編』, 『中國分省醫籍考』, 『中國醫籍提要』, 『中醫古籍珍本提要』, 『中國醫籍通考』,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現存本草書錄』, 『歷代中藥文獻精華』, 『中國針灸薈萃·現存針灸醫籍』		
판본	개론	판본과 판본학	
		판본학 연구와 학습의 의의	
	고문헌 형태 연혁 및 판본제도	서적 형태의 연혁	• 간책시기 • 권축시기 • 책지시기
		고문헌 장정형식과 판식	
	중의문헌 판본의 유별	비인쇄류	필사서적, 간책, 견백, 권축,
인쇄류		금석탁본 및 필사본 등	
판본의 감별과 선본의 이용	판본의 감별		
선본과 중의고문헌 판본의 선택과 이용	• 선본서목: 『中國善本書提要』, 『中國古籍善本書目』, 『中國國家圖書館古籍珍品圖錄』, 『北京大學圖書館藏善本書錄』		
훈석	개론	훈석	
		훈고와 주석	
		훈석의 유래	
	중의문헌 훈석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어 의의 詮釋 • 同音通假 • 어법구조의 분석 • 注疏修辭 방법 • 斷句標點의 표시 • 篇章意旨의 탐구 • 학술원류 고찰 • 注字音의 正訛誤 	
		중의문헌 훈석 방법	• 以字形索義 • 以字音求義 • 以類聚取義
중의 훈석 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說義 술어 • 擬音 술어 • 語法 술어 • 修辭 술어 		

구분	대구분	중구분	세구분
교감	개론	교감과 교감학	
		교감의 목적과 의의	
	교감의 대상	• 誤字 • 脫文 • 衍文 • 倒錯 • 異文 • 避諱字	
		교감의 방식	• 存真式 • 求真式 • 校異式 • 訂訛式
교감의 방식과 방법	교감의 방법	• 對校法 • 本校法 • 他校法 • 理校法	
변위와 집일	중의문헌의 변위	개론	
		위서 발생의 원인	
		변위의 방법	• 역대서목의 조사 • 의서내용의 분석 • 언어의 특징 연구 • 인용문헌의 고찰 • 작가 생애의 고증
	중의문헌의 집일	개론	• 집일의 함의 • 집일의 목적과 의의
		고의서 집일 개황	
		집일서적의 정보원과 집록일문의 주의사항	• 집일서의 정보원
			• 집록일문주의사항 - 고의서의 省稱 또는 별칭 - 의가 名號姓氏 사용의 일문 - 단계적인 일문의 정리 - 선인의 집일본 참고
			의서 집일의 방법
		집일문헌 이용시 주의사항	

이상의 표와 같이 중의문헌학의 서지학적 교육은 목록에서부터 집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의문헌의 목록에 대한 교육은 목록과 목록학의 의의, 목록의 기본구조와 유형 및 중의 전문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록의 유형은 크게 고대목록과 현대목록으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그중 고대목록은 官修目錄, 史書目錄, 私家目錄을 교육하고 있다. 중의 전문목록으로 한대에서부터 청대까지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醫學讀書志』에서부터 『中國針灸薈萃·現存針灸醫籍』에 이르기까지 주로 현대에 간행된 상용의 전문목록을 교육하고 있다.

둘째, 중의문헌의 판본에 대한 교육은 판본과 판본학 및 판본학 연구의 학습의 의의, 고문헌 형태 연혁 및 판식, 중의 문헌 판본의 유별 및 판본의 감별과 선본의 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문헌 형태의 연혁은 은대에서부터 삼국시대의 간책시기, 오대까지의 권축시기, 송대부터 청대까지의 책지 시기의 세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고문헌 장정형식과 판식의 이해를 교육하고 있다. 중의문헌 판본의 유별은 비인쇄류와 인쇄류로 구분하고 있다. 비인쇄류는 간책, 견백, 권축, 고본, 초본, 금석탁본으로 구분하고, 인쇄류는 목판과 기타로 구분하되 기타의 경우 활자인쇄, 석인, 유인, 영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본의 감별은 외관과 내용으로 구분하고 그 외 題跋과 識語 및 鈴記, 각가저록을 교육하고 있다. 선본의 이용은 선본의 이해와 중의고문헌판본의 선택과 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중의고문헌의 선별과 이용을 위한 선본서목 등을 교육하고 있다.

셋째, 중의문헌의 訓釋에 대한 교육은 훈고와 주석 및 훈석의 유래, 중의문헌 훈석의 내용, 중의문헌 훈석의 방법 및 중의 훈석 술어로 구성되어 있다. 중의문헌의 훈석의 내용은 어휘의 의의와 詮釋, 同音通假, 어법구조의 분석, 注疏修辭 방법, 斷句標點의 표시, 편장 중심사상의 탐구, 학술원류의 참고, 注字音과 正訛誤 등을 교육하고 있다. 중의문헌 훈석의 방법으로 자형으로의 의미 탐색과 자음으로의 의미 파악 외에 유형별로 直訓, 轉訓, 陳說을 교육하고, 중의 훈석 술어로 說義, 擬音, 語法 및 修辭 등을 교육하고 있다.

넷째, 중의문헌의 교감에 대한 교육은 교감과 교감학 및 교감의 목적과 의의, 교감의 대상과 교감의 방식과 방법으로 구성된다. 교감의 목적은 고문헌 이용과 정리의 기초이자 중요 내용이며, 학술연구의 전제조건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감의 대상은 誤字, 脫文, 衍文, 倒錯, 異文, 避諱字의 다섯 가지이다. 교감의 방식은 存眞式, 求真式, 校異式, 訂訛式의 네 가지이며, 교감의 방법 또한 對校法, 本校法, 他校法, 理校法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중의문헌의 辨僞에 대한 교육은 위서 판별을 위한 변위의 의미, 위서 발생의 원인과 변위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변위의 방법은 역대서목의 조사, 의서내용의 분석, 언어의 특징 연구, 인용문헌의 고찰, 작가 생애의 고증 등을 교육하고 있다.

여섯째, 중의문헌의 輯佚에 대한 교육은 유실된 글과 문장의 수집을 위한 집일의 함의와 목적과 의의, 고의서의 집일 개황, 집일서적의 정보원과 輯錄佚文의 주의사항, 의서 집일의 방법 및 집일문헌 이용시 반드시 주의할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집일서의 정보원은 1) 현존하는 晉唐의 고의서, 2) 醫學類書 중의 일문¹⁵⁾, 대형의 虞서¹⁶⁾, 그외 일본 丹波康賴의 『醫心方』과 조선 金禮蒙의 『醫方類聚』(1445년)과 許浚의 『東醫寶鑑』(1611년) 등(<부록 1> 참조), 3) 동류 저작 중의 일문, 4) 고의서의 注文, 校記 중의 일문, 5) 금석, 간백, 권축 의약문헌 중의 일문, 6) 고서 傳注, 雜抄, 筆記 중의 일문을 교육하고 있다. 輯錄佚文의 주의사항으로는 고의서의 省稱 또는 별칭의 주의, 의가 名號姓氏를 사용한 일문의 주의, 단계적인 일문의 정리 및 선인의 집일본 참고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의서 집일의 방법으로 작가 관련 문제 고증, 원서의 체제 탐구 및 외형의 특징 판별, 자료 수집과 진위 선별, 내용편성의 유지 등을 교육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중의문헌학의 서지학적 교육 내용은 중의문헌의 검색과 수집을 위한 목록의 이용과 판본의 이해와 판별, 이용을 위한 訓釋과 교감, 위서 판별과 유실된 글들을 수집하는 변위와 집일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해당 내용에 대한 의서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예로 宋代의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証類本草』, 『幼幼新書』, 明代의 『普濟方』, 『古今醫統大全』, 清代의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등.

16) 예로 『太平御覽』, 『藝文類聚』, 『永樂大典』 등.

4.2 의서류 문헌 교육내용

중의문헌학의 의서류 문헌에 대한 교육은 의경류, 기초이론류, 傷寒金匱類, 診法類, 본초류, 방서류, 溫病類, 내과류, 외과류, 골상과류, 부인과류, 아동과, 五官科類, 침구류, 추나류, 醫案醫話醫論類에 이르기까지 총 16 류로 분류하고 각 관련 문헌류들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 대상 의서류 문헌을 정리하면 <부록 1>과 같으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醫經類 문헌은 『內經』과 『難經』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중 『내경』은 중의학 경전류인 『黃帝內經』에 대한 간칭이다.¹⁷⁾ 『난경』은 중국 고대의 한의서로서 『八十一難經』, 『黃帝八十一難經』으로도 불리운다. 현재 의경류 대상의 교감, 주석, 집주, 합편, 연구 등의 저작은 내경류 400여 편과 난경류 100여 편이 있으며, 관련 주요 문헌들을 교육하고 있다.

둘째, 기초이론류 문헌은 음양오행, 경락, 기혈, 병인병기, 치료원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저작들이다. 매우 다양하여 관련 문헌의 통계는 없으나 위진명대의 9종과 청대 이후의 4종의 총 13종의 중의 기초이론류 주요저작 및 추천판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셋째, 傷寒金匱類 문헌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이다. 그중 『傷寒論』은 한의학의 상한론의학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중의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헌이다. 중의에서 약물요법의 대성자로 불리우는 後漢의 張仲景이 저술한 것으로 전하며, 원래는 『傷寒雜病論』으로 급성열성전염병과 그 외의 질환에 대한 치료서로 晉의 王叔和가 이를 傷寒과 잡병으로 나누어 하나는 『상한론』과 『금궤요략』으로 개정하였다. 역대의 『傷寒論』 연구 저술은 600여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金匱要略』은 100여가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이들 대표적인 문헌들을 교육하고 관련 저술서와 연구서 및 정리, 교감, 주석, 풀이, 교재 등의 문헌을 교육하고 있다.

넷째, 診法類 문헌은 질병의 진찰 방법을 다루는 문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네 가지 진찰방법으로 四診 즉, 望診, 聞診, 問診, 切診(觸診)이 있으며, 진법류 문헌은 이러한 사진 관련 문헌류를 교육한다. 진단법류 원류로 『내경』과 『난경』등을 살피고 『脉經』에서부터 청대의 『舌鑒辨正』에 이르기까지 총 21종의 문헌을 교육하고 있다.

다섯째, 本草類 문헌은 고대 약물학 또는 약물학 저술서를 의미한다. 본초 저술서는 크게 종합적 저술서와 전문적 저술서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전자는 약물학의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각 부분의 결과를 총결하고 있어 약물학의 발전 양상을 전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이다. 후자는 약물학의 한 부분으로 약성과 약효, 식이요법, 조제, 약물도감 등을 대상으로 기술한 경우이다. 그 외에 본초류 문헌에는 현대의 중약자원학, 약용식물학, 약재학, 중약화학, 중약약리학, 중약감정학 등도 포함하고 있다. 종합적 본초류 문헌 8종과 전문적 본초류로 임상 중약학 문헌 14종과 식물본초

17) 약학정보원에 의하면 『漢書藝文誌』 方技略에 漢 이전의 의학서적 칠부(『黃帝內經』, 『黃帝外經』, 『扁鵲內經』, 『扁鵲外經』, 『白氏內經』, 『白氏外經』, 『旁篇』) 216권을 실고 이들을 醫經이라 일컬었다. 이후 『黃帝內經』과 『難經』을 의경이라 부르기도 하고 『黃帝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神農本草經』 등을 의경이라 부르기도 하며, 또는 통칭하여 의경이라고도 한다. <<http://www.health.kr/>>.

문헌 7종으로 총 29종을 교육하고 있다.

여섯째, 方書類 문헌은 처방 위주의 중의학 문헌을 의미하며, 중의문헌 중 가장 광범위한 분야이다.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의 통계에 의하면 현전하는 청대 이전의 방서류는 상한금계류, 응급각과류, 종합류 등의 의서를 제외하고 약 1,216종에 달한다. 방서의 유별은 종합방서, 전문방서, 처방론, 방술, 처방교재, 민간약처방과 민간요법회편 등이 있다. 출처를 기준으로 국내방서와 국외방서, 관찬방서와 사가편찬방서 등으로 구분된다. 주로 종합적 방서와 처방이론 방서 및 처방 관련 의학문헌 위주로 교육되던 당대 이전의 방서 7종, 송금원시기의 방서 21종, 명청시기의 방서 13종의 총 41종 외에 일본과 조선의 방서 3종을 교육하고 있다.

일곱째, 溫病類 문헌은 급성열병 분야의 문헌을 의미한다. 중국의 溫病學(Study of warm disease)은 중의 외감열병학의 하나로서 온병발생과 발전의 규칙과 예방조치를 연구하는 임상의학이다. 『전국중의도서연합목록』의 기록에 의하면 1623년 張鳳逵의 『傷暑全書』부터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네시급성열병, 말라리아, 홍역, 콜레라, 페스트, 디프테리아, 성홍열, 역병 등 각종 급성열병을 포함하여 전문저서가 580여 종이 있다. 기본적으로 원대 이전의 문헌 12종과 명청시기의 문헌 12종으로 총 24종의 문헌을 교육하고 있다.

여덟째, 內科類 문헌은 가장 근간이 되고 광범위한 분야로서 내과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한다. 중의내과는 바람, 추위, 더위, 습기, 건조, 화기 등 외부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외감질병과 감기를 제외한 내과질병인 내상잡병으로 크게 구분한다. 그중 외감질병은 다시 상한과 온병의 두 가지로 분류하며, 내상잡병은 오장육부 경락과 관련한 각종 잡병으로 구분한다. 그중 내과류 문헌은 주로 내상잡병 관련 문헌을 의미한다. 시대별로 구분하여 한대 이전의 내과문헌 7종, 송금원시기의 내과문헌 31종, 명청시기 내과문헌 30종의 총 68종을 교육하고 있다.

아홉째, 外科類 문헌은 외과 질병에 대한 진단과 예방 치료법을 취급하는 임상 분야 문헌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고대의 외과문헌은 외과전 의서 외에 일부는 醫方類 또는 종합 의서로 분류된다. 현재 중의외과의 주요 내용은 종기, 피부병, 항문질환, 외과 잡병 등이 포함된다. 『전국중의도서연합목록』의 통계에 의하면 현존하는 중의외과 고문헌은 445종이며, 여기에는 『中國醫籍通考』에서 일서로 기록된 외과 고문헌 66종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당대 이전의 외과문헌 8종과 송금원시기의 외과문헌 6종, 명청시기의 외과문헌 14종으로 총 28종의 외과문헌을 교육하고 있다.

열째, 骨傷科類의 골상은 뼈가 손상된 것을 의미하며, 중의골상과학은 관절과 주변 근육손상 및 질병 분야에 대한 학문이다. 『周禮』 『天官』에 골상 관련 내용이 있으며, 『漢書藝文志』에 『金創癰癧方』이 등장하니 골상과류의 문헌은 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전국중의도서연합목록』의 통계에 의하면 현존하는 골상과류 고문헌은 약 180여 종이다. 『중국의적통고』의 기록에 의하면 일실된 골상류 고문헌은 88종이며, 1900년 이후 중의 골상류 의적은 약 91종이다. 시기별로 구분하여 당대 이전의 골상과 문헌 8종, 송금원시기의 골상과문헌 15종, 명청시기의 골상과문헌 13종으로 총 36종을 교육하고 있다.

열한째, 婦科類는 부인과류 문헌이다. 부인과의 기록은 『史記』 『扁鵲倉公列傳』의 “扁鵲過邯鄲, 聞貴婦人, 卽爲帶下醫”의 기록 중 “帶下醫”가 부인과 의생이므로 이것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 湖南省에서 발견된 馬王堆 출토의 醫帛인 『胎產書』는 서한시기의 의서로 부인과류의 출현시기가 그 즈음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중의도서연합목록』의 통계에 의하면 현존하는 중의부인과 고문헌은 약 400종이며, 『중국의적통고』에 기재되어 있는 일실된 부인과고문헌은 93종이다. 시기로 구분하여 당대 이전의 부인과문헌 11종, 송금원시기의 부인과문헌 14종, 명청시기의 부인과문헌 14종으로 총 39종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부인과류의 부록으로 남성의 생리, 병리, 양생, 남성특유의 질병의 방생과 발전, 전위, 진단, 치료와 보호 및 보건 등의 임상과학인 男科類 문헌을 다루고 있다. 시기별로 진한시기의 남과 문헌 7종, 육조당송시기의 남과 문헌 6종, 금원명청시기의 남과 문헌 4종으로 총 17종을 교육하고 있다.

열둘째, 兒科類는 아동과류 문헌이다. 이는 아동 성장 발육 단계의 생리와 병리를 기초로 아동의 질병의 발생과 발전, 진단과 피로 및 처방 등의 약용 등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임상의학 분야를 의미한다. 『史記』 『扁鵲倉公列傳』의 “(扁鵲)聞秦人愛小兒, 卽爲小兒醫”부터 관련 문헌의 기록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전국중의도서연합목록』의 기록에 의하면 1949년까지의 1,100여 종 문헌 중 10%인 100여 종이 아동과 고의서이다. 시기별로 구분하여 한대 이전의 아동과 문헌 3종, 진당시기의 아동과 문헌 5종, 명청시기의 아동과 문헌 10종으로 총 18종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아동과류 문헌에는 별도로 痘疹類인 전염병류 문헌을 부기하고 있다. 중국은 주로 홍역과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역사적으로 아동들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질병들이었으므로 전염병류 문헌을 아동과류 문헌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국중의도서연합목록』의 기록에 의하면 1949년까지 전염병류 전문서적이 659종에 달하여 아동과문헌의 60%에 이른다. 현존하는 최초의 중국의 전염병 전문서적은 宋 董汲의 『小兒斑疹備急方論』 『小兒藥証直訣』이며, 이는 1093년에 편찬된 1권짜리 의서로 소아들의 斑疹에 관해서 논한 책이다. 비교적 중요한 송대부터 청대까지의 전염병류 문헌 총 24종¹⁸⁾과 59종의 주요 추천 판본을 교육하고 있다.

열셋째, 五官科類의 오관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개의 감각기관을 이르는 말이다. 오관과류 문헌은 이들 다섯 개의 감각기관의 형태, 생리, 발병, 진단, 치료, 처방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헌을 의미한다. 오관과류 문헌은 종합적 또는 전문 의서에서 다루고 있거나 일부 비의학 전문서적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기도 한다. 고대에는 오관과라 칭하지 않고 眼病, 耳病, 鼻病, 口唇病, 齒病, 咽喉病 등으로 구분하여 칭하였다. 그중 안과 관련 문헌이 가장 일찍 등장하였는데, 남북조시기에 전문 눈병치료 처방서가 나왔고, 당대에는 전문의서가 나왔다. 그다음은 구순병으로 대략 당대에 전문서가 나왔으나 대부분 일실되었으며, 인후과 전문서적은 명청시기에 등장하여 民國時期(1911-1949)

18) 『痘疹論』송, 『陳氏小兒痘疹方論』송, 『斑論萃英』원, 『痘疹方論』명, 『痘治理辨』명, 『博愛心鑒』명, 『痘疹世醫心法』명, 『博集稀痘方論』명, 『痘疹金鏡錄』명, 『仙傳痘疹奇書』명, 『活幼心法大全』명, 『摘星樓治痘全書』명, 『痘疹奇衡』명, 『痘科類編釋意』명, 『仁端錄痘疹』명, 『疹子心法』명, 『救偏瑣言』청, 『痘疹正宗』청, 『痘疹定論』청, 『種痘新書』청, 『麻科活人全書』청, 『天花精言』청, 『引痘略』청, 『麻疹闡注』청.

에는 200여 종에 달하였다. 시기별 및 기관별로 구분하여 선진양한남북조의 오관과 문헌 8종, 수당송원의 오관과문헌은 11종, 명청시기의 오관과 문헌 22종의 총 41종의 문헌을 교육하고 있다.

열넷째, 針灸類 문헌은 침과 뜸에 관한 문헌이다. 침과 뜸 문헌의 기원은 비교적 이르고 수량도 비교적 많다. 『중국의적통고』의 기록에 의하면 침과 뜸 고문헌은 일서 157종을 포함하여 306종이며, 침구에 대한 기록이 다른 의서에도 많이 나타난다. 선진과 한위시기는 침구의 기본이론과 전문서 편찬의 형성시기이며, 육조에서 수당 및 오대의 경우 중요 침구류 문헌이 등장하였다. 송금원시기는 침구학술의 번영시기로서 전문가들이 등장하였고, 명대에는 침구문헌이 회편 정리되었으며, 청대와 민국시기에는 침구류가 경시되었다. 시기별로 구분하여 선진한위시기의 침구문헌 7종, 남북조수당오대시기의 침구문헌 6종, 송금원시기의 침구문헌 7종, 명청시기의 침구저작 7종으로 총 27종을 교육하고 있다.

열다섯째, 推拿類 문헌은 비뚤어진 뼈를 밀고 당겨서 바르게 교정하는 추나 치료방법으로 임상치료 관련 문헌을 의미한다. 추나의 옛 칭호는 안마, 按蹠, 案扞, 按蹠, 矯摩, 膏摩로 그중 안마가 가장 보편적인 칭호이며, 이들 칭호로 저술된 문헌은 대부분 추나류 문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의 도가 양생법인 정좌, 마찰, 호흡으로 온몸의 근육과 관절을 조절하여 모든 병을 물리쳐 장생불사한다는 導引術에도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과거 導引 문헌에도 일부 추나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추나문헌은 역사가 오래되어 『韓詩外傳』에 전국시대 명의인 扁鵲이 虢 태자를 치료할 때 안마를 사용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한서예문지』에 중국 최고의 추나전문서적인 『黃帝岐伯按摩』가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전하지는 않는다. 추나류 문헌은 명대이후 점차로 증가하였다. 『전국중의도서연합목록』 통계에 의하면 1949년 이전에 현존한 중의 추나문헌은 61종이다. 원이전의 추나문헌 14종, 명청시기의 추나문헌 8종으로 총 22종을 교육하고 있다.

열여섯째, 醫案醫話醫論類 문헌은 ‘의안문헌’, ‘의화문헌’, ‘의론문헌’의 문헌을 의미하며, 중의문헌의 핵심문헌은 아니나 중의문헌학 교육대상 의서류 문헌들이다. 우선 의안문헌은 중의진료활동 기록이다. 의안류문헌은 다소 많은 편으로 『전국중의도서연합목록』에 수록된 1949년 이전의 의안류 저서는 612종이다. 의안은 醫家 생존의 시대와 환경 및 지역 등이 다르고, 학식과 애호, 수양 등도 다르며, 또한 역대 의안의 수량, 형식, 체제 등도 같지 않다. 의안은 명대에 발전하여 개인이안전문서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의안류로 분류되었으며, 의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명대의 개인이안은 약 30여 종으로 『石山醫案』, 『孫文垣醫案』, 『赤水玄珠醫案』, 『奇效醫述』, 『醫學窮源集』, 『易氏醫案』, 『醫驗大成』 등이 있다. 명대에는 중국 최초의 醫案類書인 『名醫類案』도 등장하였다. 명대의 의안 8종, 청대의 의안 27종으로 총 35종을 교육하고 있다.

의화문헌은 체제가 자유로운 의학수필이다. 의화는 소위 ‘산문’으로 내용이 짧고 길어도 길지 않으며, 수많은 중의문헌 중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그러나 의화는 의가와 학자들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그 이유는 하나, 형식과 체제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의화는 관련 의료업의 수필적 기록이거나 요점 또는 2차 자료이며, 논설 또는 의견 교환자료로 방식과 규칙에 구애받지 않는 공문서이다. 둘, 내용이 풍부하며,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다. 정해진 규칙과 구속 없이 중의학에 대한 각 부분들

기술하고 있다. 셋, 근거 있는 견해와 마음의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고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스승이나 친구가 저술한 것, 직접 목격한 것 또는 친히 실천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넷, 문장이 통쾌하고 유창하며, 의료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즉, 의화는 각별하고 매우 귀한 것으로 많은 지식과 재미와 가독성을 갖추고 있다. 당대의 의화는 당의 학자로 박학이라는 영예를 받은 段成式의 『酉陽雜俎』, 封演의 『封氏聞見記』, 柳宗元の 『龍城錄』 등의 문인들의 수필에 산재되어 있다. 송대의 의화 『醫說』 1종, 금원과 명대의 의화 4종, 청대의 9종으로 총 14종의 의화를 교육하고 있다.

의론문헌은 중의 관련 학술논저이다. 의론은 ‘산문’이나 의화와는 달리 그 특징은 하나, 체제를 갖추고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의론은 단편의 의학논문으로 논지가 명백하고 시비를 분별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구설을 토론하고 있다. 둘, 내용이 학술적이다. 의론은 일정 주제에 대한 학술적 토론을 하고 있다. 즉, 기초이론, 진찰법변증, 치료원칙, 약복용처방,各科 임상치료의 교정이 주 내용이며, 때로는 부수적으로 의료도덕, 의료저술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셋, 형식이 통일되어 있다. 주제가 명확하고, 한 가지 주제를 전문적으로 토론하며, 독립적으로 편을 이룬다. 의론은 각종 의서에 실리기에 의론 전문서적 외에 의경, 진찰법, 본초, 처방서 등 임상 의서의 각종 의서에 대량의 의론이 함께 실려 있다. 그 예로 『황제내경』은 실제 진한 이전의 많은 의론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경전에 봉해진 것이다. 이에 의론의 기원은 진한 시기로 소급되며 그 후 『千金要方』, 『三因方』, 『儒門事親』, 『本草綱目』 등의 많은 의서에 의론이 실려 있다. 당송금원의 의론 9종, 명의 의론 9종, 청대 이래의 의론 11종으로 총 29종을 교육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중의문헌학의 의서류 문헌은 내경류에서 부터 의안의화이론류에 이르기까지 총 16류 또는 남과류와 전염병류를 포함하고 의안과 의화 및 의론을 각각 구분하면 총 20류로 분류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의서류의 의미와 역사적 발전단계 및 서지적 현전 및 일실 등을 개관하고 그중 대표적인 문헌들을 교육하고 관련 저술서와 연구서 및 정리, 교감, 주석, 집주, 합편 등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5. 분석 및 시사점

이장에서는 중국의 중의문헌학 교육 현황 이해를 위하여 조사한 중의문헌학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5.1 분석

중국의 중의문헌학 교육기관과 교육내용 현황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중의문헌학은 기초의학 분야의 일 학문이다. 즉, 중의약 중점학문분야 구축전문가위원회 ‘중의약 학문구축분야 계획지도목록’에 의하면 1급 학문인 중의기초의학의 11개의 2급 학문

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중국 우수석사학위논문 원문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석사학위과정 중의학의 세부 전공영역에 중의의사문헌학이 분류되어 있다.

둘째, 중국의 중의문헌학 교육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즉, 북경중의대학에서 1950년대에 런칭치우 교수에 의해 개설되면서 시작되었고, 남경중의대학에서 최초로 중의문헌연구팀이 구성되면서 교육 주체 기관이 되었다.

셋째, 1986년에 전문분야 법제인 부문규장 ‘중의고적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이 제정되면서 중의문헌 관련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그중 중의고문헌연구소(실)와 중의고문헌연구정리 전문기구 연구소(실) 설치와 중의고문헌연구 전문 인적자원 구비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대학에서의 중의문헌학 교육이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중의문헌학은 중국특유의 새로운 학문분야가 되었다.

넷째, 중의문헌학 또는 중의의사문헌학은 중의학과 文史學의 양대 영역 교차학문이자 융복합적 학문분야이다. 즉, 의학사교연실, 각가학설교연실, 의고문교연실(중의문헌검색실 포함)이 교육의 주체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의기초이론, 내경, 상한론, 금궤요략 등의 기구와 문헌연구소의 교수진이 참가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주로 기초의대학, 문헌연구소, 중의약문화연구·유통센터, 의사박물관과 도서관 등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다섯째, 중의문헌학은 중의약대학의 기초의학의 하나로 개설 및 교육되고 있다. 필수과목 또는 선수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중의학 전공자에게 필수 학습 학문으로 권장되고 있다. 산동중의약대학의 경우 학부의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석사와 박사학위과정 또한 운영하고 있다. 학위명도 ‘중의문헌학석사’, ‘중의문헌학석사’와 ‘중의문헌학박사’로 수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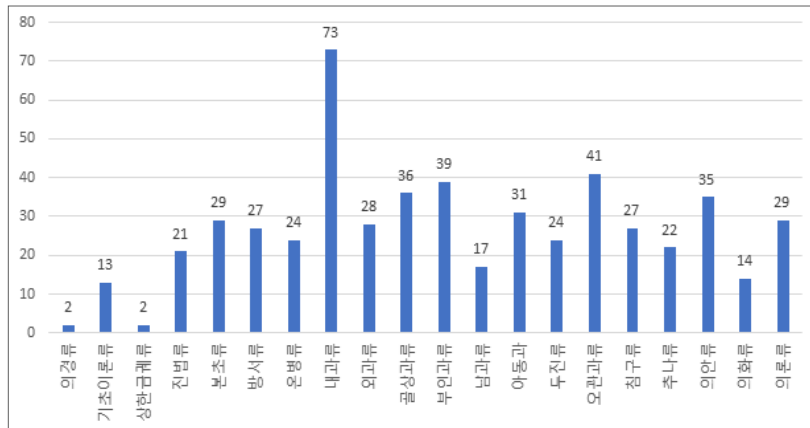
여섯째, 조사대상 교육기관의 중의문헌학의 교육 주체는 북경중의대학의 경우 중의의사문헌교연실이며, 상해중의약대학의 경우 상해중의문헌연구소이다. 남경중의약대학의 경우 중의문헌연구소이며, 산동중의약대학의 경우 중의문헌·문화연구원이다. 이들 교육 주체 기관은 중의문헌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 외에 전문서적의 저술을 책임지고 있다.

일곱째, 중국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중의문헌학 교육을 위하여 전문가와 학자들의 공동 저술로 국가급계획교재를 편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서지학적 내용과 의서류 문헌의 이해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덟째, 중의문헌학의 서지학적 교육의 내용은 중의문헌에 대한 목록, 판본, 훈석, 교감, 변위와 집일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서지학적 분야의 해당 내용에 대한 개관과 의서 중심의 실례 및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째, 중의문헌학의 의서류 문헌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의경류, 기초이론류, 상한금궤류, 진법류, 본초류, 방서류, 온병류, 내과류, 외과류, 골상과류, 부인과류, 아동과류, 오관과류, 침구류, 추나류, 의안의화의론류에 이르기까지 총 16류(또는 20류)로 구성되어 있다. 각 관련 문헌류들에 대하여 주제별, 시대별 또는 종합적인 것과 전문적인 것 등으로 구분하여 기초이론류와 주요저작 또는 대표

저작 및 주요 판본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전체 20류 총534종의 교육대상 의서류 문헌 중 내과류가 73종(14%)으로 가장 많고, 오관과류가 41종(8%)으로 두 번째로 많다. 그 외 부인과류(41종, 7%), 골상과류(36종, 7%), 의안류(35종, 7%) 등의 순이다.



<그림 1> 중의문헌학 교육 대상 의서류 문헌의 종수



<그림 2> 중의문헌학 교육 대상 의서류 문헌의 비율

열제, 각 중의문헌학 교육기관별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해중의약대학의 『永樂大畧』의료문헌의 연구정리, 남경중의약대학의 『365種中醫古籍珍本集成』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중의문헌학에 대한 이해, 정리 및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중의학 교육 현황의 조사 결과 국가적 차원의 학문 분류, 전문가 구비와 양성을 위한 법제화, 중의문헌학 교육의 주체, 학부에서의 필수 또는 선수 과목으로의 중의문헌학 개설, 학사에서부터 박사학위과정까지의 중의문헌학 전공 교육과 학위, 표준 교육을 위한 국가급 교재의 편찬과 교육, 서지학적 교육과 의서류 문헌에 대한 교육, 연구와 활용 등으로 분석되었다.

5.2 시사점

중국의 중의문헌학 교육기관과 교육내용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의문헌학은 중국 특유의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일부학자에 의하여 중의약 대학에서 교육이 시작된 이후 중의약학 분야 중 1급 학문인 중의기초의학 이하 2급 학문의 하나로 분류되고, 석사학위 과정의 세부 전공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의문헌학이 중의학 기초의학분야이자 필수 학문으로 국가 차원에서 분류 평가되고 있고, 각 교육기관은 이를 기준으로 중의학 교육 영역의 학문분야로 분류 및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은 특히 중의학 고문헌 정리와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문가 비치를 위한 법제화를 이루었다. 즉 중의문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의약대학의 학사과정에 필수과목 또는 선수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일례로 성도중의대학의 중의학 학생은 모두 중의문헌학을 공부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또한 학사와 석·박사 학위과정 및 박사후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처럼 학사에서부터 박사후 연수과정에 이르기까지 중의문헌학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중의학 문헌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전문가 양성 및 체계적 교육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중의문헌학 교육을 위하여 전문가와 학자들의 공동저술로 국가급계획교재를 편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 학자에 의하여 저술 및 교육되던 교재 대신에 역사와 서지학 및 문헌학과 정보원이라는 융복합적 성격의 다수의 관련 전문가와 학자 및 교수들이 공동으로 교재를 편찬하고 각 교육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중의문헌학이 표준적으로 교육되도록 한 것이다. 즉, 이러한 국가급계획교재는 중의문헌학이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중의문헌학 교육내용에는 목록에서부터 집일에 이르기까지 문헌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서지학적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다른 주제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서지학적 문헌적 접근과 이해 및 활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각 주제분야 중 고문헌 등 문헌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서지학적 교육 관련 내용의 모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중의문헌학의 의서류 문헌에 대한 교육은 총 16류(또는 20류)로 분류하고 각 관련 문헌류들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다. 많은 종류의 중의문헌이 교육되며, 일부 문헌의 경우 간략적 소개만으로 그치고 있어 중요문헌의 판본과 상세 내용의 교육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중의학의 각 의서류

별로 문헌을 분류 정리 및 주요 판본들을 이해하고, 교감과 주석, 풀이 등을 학습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는 각 주제분야의 문헌류 교육을 위한 분류와 내용 및 판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중의문헌학 교육은 중의문헌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평가와 분류, 학부의 필수 및 선수 교과목으로의 개설과 학사에서부터 박사후 연수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 교육과정으로의 로드맵 구축, 표준화된 교육을 위한 융복합적 성격의 국가급계획교재의 편찬과 교육 실천, 서지학적 교육내용의 모델화 또는 로드맵 제시 그리고 중의문헌학 관련 문헌에 대한 분류와 내용 및 판본에 대한 교육의 방향 제시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6. 결 론

이 연구는 중국의 중의약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문분야인 중의문헌학의 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중의문헌학은 중의고전문헌학 또는 중의의사문헌학 등으로 불리 우며 관련 교육은 1950년대에 북경중의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였으며, 남경중의약대학에서 최초로 교육 주체인 중의문헌연구팀이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86년에 전문분야 법제인 ‘중의고적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에 각급의 중의고문헌연구소(실)와 중의고문헌연구정리 전문기구 연구소(실)를 두고 반드시 중의고문헌연구 정리에 종사하는 전문 인적자원을 구비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중의고문헌 연구 및 정리기관의 설치와 전문가 구비와 양성이라는 법제화 이후 중의문헌을 수집, 정리 및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교육되기 시작한 중국특유의 새로운 융복합적인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의문헌학의 교육의 현황은 북경중의대학, 상중의약대학, 남경중의약대학 및 산둥중의약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대학에서 중의문헌연구소와 중의문헌·문화연구원 등이 교육주체가 되어 학사와 석·박사학위과정 및 박사후 연수과정에 이르기까지 중의문헌학 또는 중의의사문헌학은 필수 및 선수의 교과목 또는 전공으로 교육되고 학위과정이 운영되고 전문학위가 수여되고 있다. 국가급계획교재인 『중의문헌학』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을 살펴본 결과 중국은 중의문헌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목록에서부터 집일에 이르기까지의 서지학적 교육과 16류(또는 20류)로 분류한 의서류 534종에 대한 서지적 개관과 주요 문헌과 내용 및 판본을 교육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중의문헌학은 역사와 서지학 및 문헌학과 정보원이라는 융복합적 성격의 학문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국가급 교재의 공동 저술 및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의문헌학 교육은 중의학이라는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문헌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서지학적 문헌 접근과 이해 및 연구와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첫째, 의학분야 등과 같은 국내 서지학분야의 교육영역의 확장, 둘째, 전문 주제분야와 서지학 분야의 융복합적

연구영역의 개발, 셋째, 서지학 연구자의 주제분야별 연구영역 개발과 확장으로 해당 주제분야 연구자의 전문영역 연구 기반 마련, 넷째, 중국의『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과 『中國醫籍通考』와 같은 주제분야별 전국적 연합목록과 전문분야별 서지 구축의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가 한의학 분야 기초과목 재구조화와 표준화에 일조하기를 바라며, 그 외 주제분야의 문헌학적 교육을 위한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邵巒, 陸翔, 王鵬 等. “本科中醫文獻學競賽教學法的實踐研究.”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3(2015). 88-89.
- 邵巒, 陸翔, 王鵬 等. “以學生爲中心優化課堂設計: 談中醫文獻學課程教學體會.”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15(2017). 44-46.
- 邵巒, 陸翔. “『中醫文獻學』教學改革實踐與思考.” 『中醫藥臨床雜誌』 1(2011). 71-72.
- 顧植山. “試論中醫教育中開設中醫文獻學課程的目的和意義.” 『天津中醫學院學報』 14:2(1995). 30-31.
- 『國家中醫藥管理局 中醫藥重點學科建設專家委員會 中醫藥學科建設規劃指導目錄(暫行)』. [cited 2018.10.10] <<http://wjw.jiangsu.gov.cn/upfile/File/201710/17/1001494.doc>>.
- “國家中醫藥管理局“十二五”中醫藥重點學科建設.” 『百度文庫』. 2018. [cited 2018.11.02] <<https://wenku.baidu.com/view/17f67b2ebd64783e09122b5e.html>>.
- 南京中醫藥大學. <<http://www.njutcm.edu.cn/>>.
- 李戎. “中醫古典(籍)文獻學的學科範疇和相關問題.” 『中醫文獻雜誌』 1(1994). 24-25.
- 北京中醫藥大學. <<http://www.bucm.edu.cn/>>.
- 山東中醫藥大學. <<http://www.sdutcm.edu.cn/>>.
- 上海中醫學院. <<http://www.shutcm.edu.cn/main.htm>>.
- 薛清錄 主編.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1. <<http://lib.shutcm.edu.cn/dbtext.aspx?dbid=242>>.
- 嚴世芸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1994.
- 약학정보원. <<http://www.health.kr/>>.
- “의사학 교육, 기존 지식 토대로 직업 전문성 토론 및 문제의식 함양해야.” 『민족의학신문』. 2018년 6월 7일.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23>>.
- 李戎. “中醫院校學生都應學習一點中醫文獻學.” 『天津中醫學院學報』 1(1995). 25-6.
- 中國優秀碩士學位論文全文數據庫. <<http://202.106.125.35/kns55/brief/result.aspx?dbPrefix=CMFD>>.

書誌學研究 第76輯(2018. 12)

『中國中醫藥圖書情報雜誌』. <<http://tsqb.cintcm.com>>.

中國學位與研究生教育信息網. <<http://www.chinadegrees.cn>>.

『中醫文獻雜誌』. <<http://zywxzz.zywxg.com>>.

中醫古籍庫. <<http://zygj.cnki.net/kweb/zygj>>.

『中醫古籍文獻研究整理出版的管理辦法(試行)』. 1986.

<http://www.nlc.cn/pcab/ztzl/gjbhzcfcg/bmgz/201511/t20151103_107908.htm>.

中華中醫藥學會. <<http://www.cacm.org.cn/zhzyyxh/index.shtml>>.

“淺論中醫醫史文獻學的性質, 任務以及研究重點.” [cited 2018.10.10.]

<<http://www.shutcm.com/shutcm/jwc/jxggyyj/jxcg/27777.shtml>>.

한미경.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의 조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권 3호(2018. 8).
193-214.

[부록 1] 증의문헌학 교육대상의 의서류 문헌

종류	시기	해당 문헌	비고
醫經類	내경류	•『內經』	•『內經』: 간칭, 『黃帝內經』
	난경류	•『難經』	
基礎理論類	위진-명	•『中藏經』, 『內照法』, 『褚氏遺書』, 『諸病源候論』, 『三因極一病証方論』, 『醫學啓源』, 『醫旨緒余』, 『醫貫』, 『類經圖翼』, 『類經附翼』, 『景岳全書·傳忠錄』, 『元和紀用經』, 『素問六氣玄珠密語』, 『素問入式運氣論奧』, 『濟濟總錄·運氣』, 『運氣易覽』	•9종
	청대이후	•『醫宗金鑒·運氣要訣』, 『四聖心源』, 『上池涓滴』, 『醫學實在易』, 『醫林改錯』, 『醫學指歸』, 『醫易通說』, 『國醫生理學』	•4종
傷寒金匱類	상한류	•『傷寒論』	
	금궤류	•『金匱要略』	•『金匱要略』, 일명 『金匱』, 『金匱要略方論』, 간칭 『金匱要略』
診法類	진법류 명저	•『脈經』, 『王叔和脈訣』, 『玉函經』 당, 『崔氏脈訣』 남송, 『察病指南』 송, 『敖氏傷寒金鏡錄』 원, 『診家樞要』 원말명초, 『瀕湖脈學』 명, 『診家正眼』 명, 『醫燈續焰』 명 傳, 청 輯注, 『傷寒舌鑿』 청, 『診宗三昧』 청, 『四診抉微』 청, 『醫學輯要』 淸, 『三指禪』 淸, 『四診集成』 청, 『舌苔統志』 청, 『望診遵經』 청, 『脈義簡摩』 청, 『形色外診簡摩』 청, 『舌鑿辨正』 청	•21종 •『王叔和脈訣』, 일명 『脈訣』 •『玉函經』, 일명 『廣成子玉函經』, 『生死歌訣』 •『敖氏傷寒金鏡錄』, 간칭 『傷寒金鏡錄』 •『診宗三昧』, 일명 『石頑老人診宗三昧』
本草類	종합류	•『神農本草經』, 『本草經集注』, 『新修本草』 북송, 『經史証類備急本草』 북송, 『証類本草』, 『本草綱目』 명, 『本草綱目拾遺』, 『中華本草』	•8종 •『經史証類備急本草』, 간칭 『証類本草』
	전문류	•임상 증약학 저작: 『湯液本草』 원, 『本草衍義補遺』 원, 『本草經疏』 명, 『本草正』 명, 『本草匯言』 명, 『藥品化義』 명-청, 『本草備要』 청, 『本草從新』 청, 『本經逢原』 청, 『本草經解要』 청, 『神農本草經百種錄』 청, 『得配本草』 청, 『本草求真』 청, 『神農本草經讀』 청 •식물본초: 『食療本草』 당, 『飲膳正要』 원, 『救荒本草』 명, 『食物本草』 미상, 명 李時珍參訂, 『脈藥聯珠·食物考』 청, 『隨息居飲食譜』 청	•임상 증약학 저작 4종, 식물본초 7종, 총 21종 •『本草衍義補遺』, 일명 『丹溪本草』 •『本草正』: 『景岳全書』之卷48·49. •『藥品化義』, 補訂 간행 후 『辨藥指南』으로 변경 •『本草從新』: 『本草備要』基礎上撰成. •『神農本草經讀』: 『神農本草經』의 해석
方書類	당이전	•『五十二病方』 서한, 『黃帝內經』, 『傷寒雜病論』 동한, 『肘后備急方』 진,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 당, 『外台秘要』 당	•7종 •『五十二病方』: 1973년 湖南 長沙 馬王堆 三號 漢墓에서 출토
	송금원	•官修方書: 『太平聖惠方』, 『太平惠民和劑局方』, 『聖濟總錄』, 『御藥院方』 남송 •私家所撰方書: 『博濟方』 북송, 『蘇沈良方』 북송, 『鷄峰普濟方』 남송, 『普濟本事方』과 『本事方續集』 남송, 『三因極一病証方論』 남송, 『楊氏家藏方』 남송, 『易簡方』과 『續易簡方』 북송, 『是齋百一選方』 북송, 『濟生方』과 『濟生續方』 남송, 『仁齋直指方論』 남송, 『宣明論方』, 『東垣試效方』 남송, 『丹溪心法』 명, 『世醫得效方』 원	•관찬방서 4종, 사가편찬 방서 7종, 총 11종 •『太平惠民和劑局方』, 간칭 『和劑局方』 •『聖濟總錄』, 일명 『政和聖濟總錄』 •『博濟方』, 원명 『王氏博濟方』 •『蘇沈良方』, 일명 『內翰良方』 또는 『蘇沈內翰良方』 •『普濟本事方』과 『本事方續集』, 일명 『類証普濟本事方』, 『普濟本事方』 •『三因極一病証方論』, 일명 『三因極一病源論粹』, 간칭 『三因方』 •『是齋百一選方』, 일명 『新刊續添百一選方』 •『宣明論方』, 일명 『黃帝素問宣明論方』 •『東垣試效方』, 일명 『東垣效驗方』, 『東垣先生試效方』

종류	시기	해당 문헌	비고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普濟方』 명, 『奇效良方』 명, 『醫方考』 명, 『万病回春』 명, 『証治准繩類方』 명, 『祖劑』 명, 『古今名醫方論』 청, 『醫方集解』 청, 『湯頭歌訣』 청, 『絳雪園古方選注』 청, 『申雅內外編』 청, 『驗方新編』 과 『梅氏驗方新編』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종 • 『奇效良方』, 일명 『太醫院經驗奇效良方大全』 • 『証治准繩類方』, 일명 『雜病証治類方』 • 『絳雪園古方選注』, 일명 『十三科古方選注』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醫心方』 • 조선: 『醫方類聚』, 『東醫寶鑑』 	• 3종
溫病類	원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黃帝內經』, 『難經』, 『傷寒論』, 『傷寒論·序例』, 『諸病源候論』, 『千金方』, 『外台秘要』 당, 『傷寒總病論』 북송, 『傷寒類証活人書』 북송, 『傷寒標本心法類萃』 과 『傷寒直格』 금, 『醫經溯洄集』 원 	• 12종
	명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溫疫論』 명, 『廣瘟疫論』 청, 『傷寒溫疫條辨』 청, 『疫疹一得』 청, 『溫熱論』 과 『三時伏氣外感篇』 청, 『濕熱條辨』 청, 『溫病條辨』 청, 『溫熱經緯』 청, 『增訂傷暑全書』 명말原著, 청말增訂, 『時病論』 청, 『重訂通俗傷寒論』 청 	• 12종
內科類	한대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내과 문헌: 『尙書』, 『周易』, 『詩經』, 『山海經』 • 『內經』, 『傷寒雜病論』, 『中藏經』 	• 7종
	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당 방서 중 내과문헌: 『肘后備急方』, 『小品方』 北朝, 『千金要方』, 『外台秘要』 • 『諸病源候論』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종 • 『小品方』, 일명 『經方小品』
	송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서 중 내과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찬방서 중 내과문헌: 『太平聖惠方』, 『太平惠民和劑局方』 - 사가방서 중 내과문헌: 『聖濟總錄』, 『三因極一病証方論』, 『仁齋直指方論』, 『世醫得效方』 • 금원 의가 저술 중 내과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劉完素 저술: 『內經』, 『素問玄機原病式』, 『宣明論方』, 『素問病機氣宜保命集』, 『三消論』 등 - 張從正 저술: 『儒門事親』 - 易水學派 의가 저술: 『內外傷寒辨惑論』 남송, 『脾胃論』, 『蘭室秘藏』 - 張元素 저술: 『醫學啓源』, 『臟腑標本藥式』, 『醫學啓源』 남송 - 王好古 저술: 『醫壘元戎』, 『陰証略例』, 『此事難知』 원 - 丹溪學派 의가 저술: 『格致余論』 원, 『局方發揮』 원, 『金匱鉤玄』 원, 『丹溪心法』 명 - 戴元禮 저술: 『金匱鉤玄』, 『証治要訣』, 『推求師意』 등 - 王履 저술: 『醫經溯洄集』 • 내과 전문 저술: 『脚氣治法總要』 송, 『三消論』 금, 『十藥神書』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서 중 내과문헌 6종, 금원 내과문헌 23종, 전문 내과문헌 3종, 32종 • 『金匱鉤玄』, 원명 『訂正丹溪先生金匱鉤玄』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 의서 중 내과문헌: 『醫學綱目』 명, 『醫學入門』 명, 『醫林繩墨』 명, 『赤水玄珠全集』 명, 『証治准繩』 명, 『先醒齋醫學廣筆記』 명, 『景岳全書』 명, 『石室秘錄』 과 『辨証錄』 청, 『張氏醫通』 청, 『馮氏錦囊秘錄』 청, 『醫學心悟』 청, 『醫宗金鑒·雜病心法要訣』 청, 『類証治裁』 청 • 내과 전문 문헌: 『內科摘要』 명, 『慎齋遺書』 명, 『症因脉治』 명, 『醫宗必讀』 과 『病机沙篆』 명, 『醫門法律』 청, 『証治匯補』 청, 『金匱翼』 청, 『雜病源流犀燭』 청, 『醫醇叢義』 청 • 내과 전문병류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결핵, 결핵류 문헌: 『十藥神書』, 『理虛元鑒』 명, 『慎柔五書』, 『不居集』 - 혈액질환류 문헌: 『醫林改錯』 청, 『血証論』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의서 중 내과문헌 14종, 내과 전문 문헌 10종, 내과 전문병류 문헌 6종, 총 30종 • 『赤水玄珠全集』, 일명 『孫氏醫書三種』 • 『証治准繩』, 일명 『六科証治准繩』 • 『張氏醫通』, 원명 『醫通』

종류	시기	해당 문헌	비고
外科類	당이전	•『五十二病方』, 『黃帝內經』, 『傷寒雜病論』, 『劉涓子鬼遺方』, 『肘后備急方』, 『諸病源候論』, 『外台秘要』, 『千金方』	•8종
	송금원	•『衛濟寶書』 남송, 『集驗背疽方』 남송, 『外科精要』 남송, 『外科精義』 원, 『仙傳外科集驗方』, 『瘡瘍經驗全書』 명	•6종 •『仙傳外科集驗方』, 일명 『仙傳外科秘方』 •『瘡瘍經驗全書』, 일명 『竇氏外科全書』
	명청	•『外科集驗方』 명, 『外科發揮』 명, 『外科理例』 명, 『外科樞要』 명, 『癰疽機要』 명, 『外科啓玄』 명, 『外科正宗』 명, 『癰疽選粹』 명, 『外科大成』 청, 『洞天奧旨』 청, 『外科証治全生集』 청, 『癰醫大全』 청, 『外科証治全書』 청, 『外科傳薪集』 청	•14종 •『洞天奧旨』, 일명 『外科秘錄』 •『外科証治全生集』, 일명 『外科全生集』
骨傷科類	당이전	•『黃帝內經』, 『肘后備急方』, 『劉涓子鬼遺方』, 『諸病源候論』, 『仙授理傷續斷秘方』 당 •기타 의서 중 골상과류 문헌: 『華佗神醫秘傳』, 『針灸甲乙經』 서진, 『小品方』 남북조, 『千金要方』 당, 『千金翼方』 당, 『傳信方』 당, 『外台秘要』 당, 『集驗方』 당, 『古今錄驗』 당, 『必效方』, 『救急方』 당, 『廣濟方』, 『許仁則方』 당	•8종
	송금원	•宋金 방서 중 문헌: 『太平聖惠方』 북송, 『聖濟總錄』 북송, 『博濟方』, 『普濟本事方』, 『三因極一病証方論』, 『醫說』, 『儒門事親』, 『洗冤集錄』, 『醫學發明』, 『格致余論』, 『衛濟寶書』 남송, 『集驗背疽方』 남송, 『外科精要』 남송 •元代 방서 중 문헌: 『永類鈴方』 원, 『世醫得效方·正骨兼金鑑科·瘡腫科』 원	•원금 방서 13종. 원대 방서 2종, 총 15종
	명청	•『跌損妙方』 명, 『正體類要』 명, 『正骨心法要旨』 중, 『傷科匯纂』 청, 『傷科補要』 청, 『傷科方書』 청, 『救傷秘旨』 청 •기타의서 중 골상과 문헌: 『普濟方』 명, 『証治准繩·癰醫証治准繩』 명, 『外科樞要』 명, 『外科正宗』 명, 『癰醫大全』 청, 『醫林改錯』 청	•13종
婦科類	당이전	•『胎產書』, 『黃帝內經』, 『金匱要略』, 『諸病源候論』, 『產寶』, 『小品方』 남북조, 『褚氏遺書』, 남제, 『千金要方』 당, 『千金翼方』 당	•11종 •『產寶』: 昝殷所撰者, 大中 7년(853), 原書 3卷
	송금원	•『產育寶慶集』 북송, 『婦科秘蘭全書』 남송, 『陳素庵婦科補解』 남송, 『坤元是保』 남송, 『女科濟陰要語萬金方』, 『薛氏濟陰萬金方』, 『女科胎產問答要旨』, 『濟陰要語』, 『女科萬金方』, 『鄭樸庵先生女科萬金方傳燈』, 『產寶諸方』, 『衛生家寶產科備要』 남송, 『女科百問』 남송, 『女科百問』 남송	•14종 •『產寶諸方』: 일서, 현전본은 『四庫全書』 간행시 『永樂大典』 輯復한 것임 •『衛生家寶產科備要』, 일명 『衛生家寶產科方』 •『女科百問』, 일명 『產寶百問』, 『女科百問』, 일명 『產寶百問』
	명청	•『校注婦人良方』 명, 『女科撮要』 명, 『萬氏婦人科』 명, 『女科証治准繩』 명, 『濟陰綱目』 명, 『邯鄲遺稿』 명, 『景岳全書·婦人規』 명, 『傳青主女科』 명말청초, 『醫宗金鑒·婦科心法要訣』, 『達生篇』 청, 『臨証指南醫案』 청, 『婦科玉尺』 청, 『竹林寺女科』 청, 『醫原·女科論』 청	•14종 •『萬氏婦人科』, 일명 『萬氏女科』 『萬氏家傳婦人秘科』 •『竹林寺女科』, 일명 『竹林寺女科全書』
	부록 :男科類	•진한시기의 남과 문헌 -馬王堆 출토 醫帛類: 『五十二病方』, 『雜療方』, 『養生方』, 『十問』, 『合陰陽』, 『天下至道談』 -중의경전: 『黃帝內經』, 『傷寒雜病論』 •육조당송시기의 남과 문헌: 『針灸甲乙經』 진, 『肘后急備方』 진, 『諸病源候論』 수, 『千金要方』과 『千金翼方』 당, 『太平聖惠方』 송초 •금원명청시기의 남과 문헌: 『廣嗣紀要』, 『醫學正印種子篇·男科』, 『景岳全書』, 『陽痿論』 청	•17종 •『廣嗣紀要』, 일명 『萬氏家傳廣嗣紀要』

종류	시기	해당 문헌	비고
兒科類	한이전	●『素問·通評虛實論』, 『靈樞·論疾診尺』, 『靈樞·逆順肥瘦』	●3종
	진당	●『脉經』, 『諸病源候論』, 『千金要方』, 『外台秘要』, 『顛凶經』	●5종
	송원	●『小兒藥証直訣』 송, 『幼幼新書』 남송, 『小兒衛生總微論方』, 『小兒病源方論』 송, 『仁齋直指小兒方論』 송, 『活幼心書』와 『活幼口議』, 『宣明論方·小兒科論』, 『內外傷辨惑論』, 『丹溪心法』	●10종 ●『小兒衛生總微論方』, 일명 『保幼全書』
	명청	●『嬰童百問』 명, 『全幼心鑿』 명, 『幼科類粹』 명, 『幼科發揮』 명, 『保嬰撮要』 명, 『幼科金針』 명, 『幼科鐵鏡』 청, 『幼科直言』 청, 『幼科要略』 청, 『幼幼集成』 청, 『幼科釋謎』 청, 『福幼編』 청, 『保赤存眞』 청	●13종 ●『幼科直言』, 일명 『幼科指掌集成』, 『孟氏幼科』
	痘疹類	●송-청	●24종
五官科類	선진양한 남북조	●『馬王堆漢墓帛書』, 『武威漢代醫簡』, 『內經』, 『難經』, 『傷寒論』, 『金匱要略』, 『神農本草經』, 『中藏經』	●8종
	수당송원	●일반의서: 『諸病源候論』, 『千金要方』, 『外台秘要』, 『醫心方』,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世醫得效方』 ●안과 전문문헌: 『銀海精微』 당, 『原机啓微』 원, 『秘傳眼科龍木論』 ●구치인후 전문문헌: 『走馬疳急方』 송	●일반의서 7종, 안과 전문문헌 3종, 구치인후 전문문헌 1종, 총11종 ●『走馬疳急方』, 일명 『走馬急疳眞方』, 『走馬急疳治療奇方』
	명청	●종합 의서: 『普濟方』 명, 『証治准繩』, 『古今醫統大全』 명, 『古今圖書集成』 청 ●眼科 전문서: 『審視瑤函』 명, 『一草亭目科全書』 명, 『眼科百問』 청, 『醫宗金鑿·眼科心法要訣』 청, 『目經大成』 청, 『銀海指南』 청, 『眼科錦囊』, 『續眼科錦囊』 ●咽喉口齒 전문서: 『口齒類要』 명, 『咽喉脉証通論』 명, 『尤氏喉科秘書』 청, 『喉科指掌』 청, 『重樓玉鈞』 청, 『喉症全科紫珍集』 청, 『疫痧草』 청, 『爛喉丹痧輯要』 청, 『時疫白喉捷要』 청, 『白喉忌表抉微』 청	●종합의서 4종, 안과전문서 8종, 10종, 총 22종 ●『審視瑤函』, 일명 『眼科大全』, ●『眼科百問』, 일명 『眼科自療問答』, 『改良眼科百問』, 『眼科秘傳』 ●『醫宗金鑿·眼科心法要訣』, 『醫宗金鑿』 第7-8卷 ●『目經大成』, 일명 『目科正宗』 ●『銀海指南』, 일명 『眼科大成』 ●『銀海指南』, 일명 『眼科大成』 ●『咽喉脉証通論』, 일명 『秘傳喉科十八証』 ●『尤氏喉科秘書』, 일명 『尤氏秘傳喉科眞本』, 『喉科尤氏書』, 『喉科秘本』, 『喉科秘傳』 ●『喉科指掌』, 일명 『治喉指掌』, 『喉科秘旨』 ●『喉症全科紫珍集』, 일명 『喉科紫珍全集』, 『經驗喉科紫珍集』, 『七十二種繪圖喉科全書』, 『增補經驗喉科紫珍集』, 『疫痧草』, 일명 『疫痧草辨論章』, 『疫痧草病象章』, ●『爛喉丹痧輯要』, 일명 『喉痧輯要』 ●『時疫白喉捷要』, 일명 『治喉捷要』, 『治喉症神效方』 ●『白喉忌表抉微』, 일명 『洞主仙師白喉治法忌表抉微』, 『白喉治法忌表述要』, 『喉証治法忌表抉微』, 『喉症神效方』, 『白喉瘋神方』
針灸類	선진한위	●『足臂十一脉灸經』, 『陰陽十一脉灸經』, 『黃帝內經』, 『難經』, 『黃帝明堂經』, 『黃帝蝦蟆經』, 『針灸甲乙經』	●7종 ●『黃帝明堂經』, 일명 『黃帝內經明堂』, 간칭 『明堂經』, 『明堂』 등, 原書已佚, 撰者不詳 ●『針灸甲乙經』, 완전명 『黃帝三部針灸甲乙經』, 간칭 『甲乙經』

종류	시기	해당 문헌	비고
	남북조수당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千金要方』, 『千金翼方』, 『灸法圖』, 『新集備急灸經』, 『灸經明堂』, 『人神流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종
	송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太平圣惠方』, 『銅人腧穴針灸圖經』, 『針灸資生經』, 『備急灸法』 남송, 『針灸四書』 원, 『濟生拔萃』 원, 『十四經發揮』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종 『銅人腧穴針灸圖經』, 일명 『新鑄銅人腧穴針灸圖經』 『針灸資生經』, 간칭 『資生經』
	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針灸大全』 명, 『針灸集書』 명, 『針灸節要聚英』 명, 『針灸問對』 명, 『針灸大成』 명, 『類經圖翼』 명, 『針灸逢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종 『針灸集書』, 일명 『針灸詳說』 『針灸問對』, 일명 『針灸問答』
推拿類	원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黃帝內經』, 『諸病源候論』 수, 『備急千金要方』 기타 의서 중의推拿 논술: 『金匱要略』 한, 『外台秘要』 당, 『傷寒總病論』 송, 『醫說』 송, 『宋史』 송, 『聖濟總錄·治法門』 송, 『素問玄機原病式』 금원, 『儒門事親』 금원, 『脾胃論』 금원, 『丹溪心法·腰痛』 원, 『壽親養老新書』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종
	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針灸大成·小兒按摩經』 명, 『小兒推拿秘旨』 명, 『秘傳推拿妙訣』 명, 『推拿廣義』 명, 『幼科推拿秘書』 명, 『幼科鐵鏡』 명, 『保赤推拿法』 명, 『厘正按摩要術』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종 『針灸大成·小兒按摩經』, 일명 『陳氏小兒按摩經』, 『保嬰神術按摩經』 『小兒推拿秘旨』, 일명 『小兒推拿活嬰秘旨全書』, 『小兒推拿活嬰全書』 『秘傳推拿妙訣』, 일명 『小兒推拿秘訣』 『推拿廣義』, 일명 『小兒推拿廣義』 『幼科推拿秘書』, 일명 『推拿書』
醫案醫話 醫論類	의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안: 『石山醫案』, 『孫文垣醫案』, 『赤水玄珠醫案』, 『奇效醫述』, 『醫學窮源集』, 『易氏醫案』, 『醫驗大成』 - 의안류 유서: 『名醫類案』 명 • 청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안: 『寓意草』 명말청초, 『印机草』, 『臨証指南醫案』, 『洄溪醫案』, 『吳門治驗錄』, 『吳鞠通醫案』, 『程杏軒醫案』, 『王氏醫案』, 『得心集醫案』 - 기타 개인의안: 『東庄醫案』, 『素圃醫案』, 『四明醫案』, 『靜香樓醫案』, 『薛氏醫案』, 『奇症匯』, 『南雅堂醫案』, 『齊氏醫案』, 『王九峰臨証醫案』, 『尙友堂醫案』, 『問齋醫案』, 『費伯雄醫案』, 『王旭高臨証醫案』, 『柳寶詒醫案』, 『張聿青醫案』, 『診余舉隅錄』, 『診余集』, 『陳蓮舫醫案秘鈔』 - 유편합편 의안: 『續名醫類案』 청, 『三家醫案合刻』 청, 『柳選四家醫案』 청, 『陸氏三世醫驗』, 『龍砂八家醫案』 청 - 評注類 의안: 『薛案辨疏』 청, 『王氏醫案釋注』 청, 『古今醫案按』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대 8종, 청대 27종, 총 35종 『孫文垣醫案』, 일명 『生生子醫案』, 『赤水玄珠醫案』, 『印机草』, 일명 『馬氏醫案』
	의화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대: 『醫說』 • 금원-명대: 『續醫說』, 『折肱漫錄』, 『上池雜說』, 『裴子言醫』 • 청대: 『柳洲醫話』, 『客塵醫話』, 『潛齋醫話』, 『歸硯錄』, 『愿休醫話』, 『冷廬醫話』, 『存存齋醫話稿』, 『對山醫話』, 『友漁齋醫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대 1종, 금원-명대 4종, 청대 9종, 총 14종
	의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송-금원: 『褚氏遺書』, 『醫經正本書』, 『太醫局諸科程文』, 『格致余論』, 『局方發揮』, 『醫經溯源集』, 『格致余論』, 『局方發揮』, 『醫經溯源集』 • 명: 『推求師意』, 『韓氏醫通』, 『醫旨緒余』, 『靈蘭要覽』, 『肯堂醫論』, 『醫貫』, 『先醒齋醫學廣筆記』, 『傳忠錄』, 『質疑錄』 • 청: 『侶山堂類辨』, 『醫學讀書記』, 『醫學源流論』, 『醫貫砭』, 『醫醫病書』, 『重慶堂隨筆』, 『研經言』, 『醫原』, 『王氏醫存』, 『讀醫隨筆』, 『吳醫匯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송-금원 9종, 명 9종, 청- 11종, 총 29종

